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역동경제 프렌차 엠버서더

6. 17.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16(금) 오전 11시부터 보도가능)

배포일시	2017. 6. 16. (금)	담당부서	수출입과
담당과장	이민우 과장(044-203-4040)	담 당 자	김대영 사무관(044-203-4041)

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 개최

- 6월 수출 증가로 8개월 연속 증가('11.12월 이후 5년 6개월만) **-**

- 기제기 58건 애로사항 중 53건 조치 중, 11건 신규 애로 발굴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6. 16.(금) 15:00 **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이인호 1차관 주재**로 **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**를 개최하여 **6월 수출동향을 점검**하고, **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**했다.

○ 이번 회의는 **11개 주요 업종 협단체***와 코트라·무역보험공사 등 **수출지원기관**이 참석한 가운데 **업종별 수출 동향**과 **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·관리**하기 위해 개최했다.

* 반도체협회, 자동차협회, 자동차협동조합, 조선협회, 전자정보통신진흥회, 철강협회, 석유화학협회, 석유협회, 기계산업진흥회, 섬유산업연합회, 디스플레이협회

□ **이인호 차관**은 "**최근 우리 수출**이 7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**견고한 회복세를 시현중**이며, **6월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**이나, **연간 전체로는 상고하저 흐름**이 예상돼 **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.**"라고 말하면서,

○ "**최근 유가의 전년동기대비 하락 반전**, 미국 **금리 인상**에 따른 신흥국 수입수요 위축 가능성, **미·중의 보호무역주의 강화** 등이 **하반기 우리 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**할 것으로 예상되며,

- 특히, **4분기 수출**은 전년대비 **조업일수 감소(△5.5일), 선박 인도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 가능성도 있다.**"라고 말했다.

○ 이러한 하반기 수출 여건 악화에 대비해 정부는 **수출 품목·시장 다변화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**해 나가고, **주력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 및 12대 신산업별 대책 추진 등**을 통해 **수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**해 나가고,

- **미·중의 보호무역 강화**에 대해서는 **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, 철강 수입제한 검토 등 대미 통상 현안**에 대해 **범부처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**하는 한편, **중국과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강화**하여 **비관세장벽 등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**할 것이라고 밝혔다.

- 특히, **신흥시장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**하고, **전시회·상담회·수출바우처 지원도 확대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**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.

○ 또한, 최근 고용 없는 수출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, **수출에 의한 취업자 수는 총 취업자수의 약 1/4을 차지하고, 그 비중도 점차 확대**되고 있어 **수출의 일자리 창출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**고 말하면서,

- **업종별 협단체 및 수출지원기관**에서도 **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수출현장의 애로 발굴 노력을 강화**하고, **대중소기업 상생협력** 및 **중소·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**을 통해 **수출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복원해 나가자고 당부**하였다.

□ **6월 수출에 대해 업종별 협단체는 주요 주력품목들이 세계교역 회복, 단가 상승 지속**으로 **전년동기대비 증가**할 것으로 전망했다.

○ 특히, **선박·반도체·디스플레이·석유화학 등이 두 자리** 수 **증가율**을 **기록하며 총수출 증가를 견인**할 것으로 기대했다.

* 선박(고가 해양플랜트 통관), 반도체(메모리 가격 안정 및 수요 강세 지속), 디스플레이(OLED 수요 확대, LCD 가격 상승), 석유화학(유가 상승, 신증설 설비 가동)

○ 올해 **6월 수출 증가** 시 '11. 12월 이후 **5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**하게 되고, **분기 수출**로도 '14. 4분기 이후 **2년 2분기 만에 3분기 연속 수출이 증가**하게 된다.

□ 아울러, **미 금리인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**에 대해 대부분 주력품목 협단체는 **직접적 영향은 제한적**이나, **우리 수출의 57%를 차지하는 신흥국의 수입수요 위축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**고 밝혔다.

○ **신흥국 수출비중이 높은 건설기계·냉동공조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**되며, **대미 수출**은 **금융비용 상승**에 따라 **자동차·대형가전** 등에서 **부정적 영향이 가능하다**고 말했다.

□ 이어서 그간 제기된 **총 58건의 애로사항**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한 바, 산업부는 **14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**하였으며, **39건의 애로는 애로사항을 수용**하고 **현재 조치 중에 있다**고 밝혔다.

○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**칠레 수출시 자유무역협정(FTA)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** 위해 칠레 통관시 **원산지증명서 사본도 제출 가능토록 개선**, **기계 수출시 수은이 합작 설립한 해외리스회사를 쉽게 활용**할 수 있도록 **금리·담보조건·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제공** 등이 있었다.

○ **베트남 세관 통관시 자유무역협정(FTA)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개선**(원산지 증명서 발급일자가 선적일로부터 1개월 이상 차이나는 경우, 재발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), **국내 수출신용기관(수출입 은행 등)이 엄격한 '자국산' 기준(한국內 생산) 적용**으로 해외 플랜트수주시 가격 경쟁력약화 **등 총 11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·제기**되었다.

□ 마지막으로 **코트라·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**은 **상반기 실적과 함께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**을 발표했다.

○ 상반기 중 **3,542개사에 지사화 사업·해외전시회 등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21.2억불의 수출**을 지원하고(1~4월), 신흥국 한도 확대 등을 통해 **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전년동기대비 51.0% 확대**(4.9→7.4조원, 1~5월)했으며,

○ 하반기에는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**중소·중견기업 대상 신흥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**하는 것을 목표로 **상담회·사절단을 아세안·인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집중 배치**하고,

* 상담회·사절단 파견 : ('16) 297회 → ('17) 315회

- **중소·중견기업 대상 신흥시장 무역보험 지원**을 **적극 확대**하기로 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김대영 사무관(☎044-203-40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